

2040세대, FTA 재협상 58% ... 탈북자 복송 반대 82%

(한·미)

중앙일보·정치학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동기획 '2040 표심은' <상>

20~40대(2040세대)의 표심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두드러지더니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그 영향력을 다시 입증했다. 이제 관심은 2040세대의 표심이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다.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회장 김호섭)·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가 이들의 투표 행태를 분석하는 '4·11 총선, 2040세대의 표심은'을 공동으로 기획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재협상', 탈북자 복송을 막기 위해선 '적극 노력'. 중앙일보가 한국정치학회 가산준 단국대 교수팀과 공동으로 실시한 '2040세대 정치의식 조사'에서 드러난 이들 세대의 인식이다.

'한·미 FTA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2040세대'의 57.8%가 '재협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13.9%가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20대는 62.9%가 '재협상해야 한다', 17.2%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50대 이상에선 '재협상해야 한다'는 답변이 32.1%,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1%에 그쳤다.

탈북자 강제 복송과 관련, 조사 대상자들

50대 이상 32% "FTA 재협상"

탈북자 문제엔 세대차 없어

"내 투표가 중요하다" 74%

2040 정치참여 의지 높아

에게 ①북한·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관여해선 안 된다 ②탈북자 복송을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결과 2040세대의 82.3%가 ②번을 택했다. 50대 이상에서도 82.1%가 ②번을 골랐다. 두 세대 모두 북한·중국과의 관계보다는 탈북자들을 희망에 따라 복송을 막는 노력이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놓고선 '건설 찬성'이 42.7%, '건설 반대'가 41.5%로 팽팽했다. 50대 이상에선 71.4%가 '건설 찬성'이었고, 12.6%만이 '건설 반대'였다. 가산준 교수는 "한·미 관계와 경제적 문제가 얽혀 있는 한·미 FTA,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탈북자 문제로 2040세대의 성향을 본다면 안철수 교수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 ◆한·미 FTA
 - 20~40대: 폐지 13.9% 재협상 57.8% 유지 20.8%
 - 50대 이상: 폐지 6.1% 재협상 32.1% 유지 53.9%
- ◆탈북자 국내 송환
 - 북한·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관여해선 안 된다
 - 20~40대 14.8% 50대 이상 14.0%
 - 탈북자 복송을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20~40대 82.3% 50대 이상 82.1%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코드가 읽힌다"고 평가했다. 안 원장은 최근 탈북자 복송 반대시위 현장을 잠시 방문한 적이 있다.

이와 함께 정치 참여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표하기 때문에 내 투표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더니 2040세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73.9%였다. 50대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66%였다. 이 물음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이 높아야 정치 효능(效能)감이 높은 세대로 해석된다. 효능감이 높으면 선거 참여 가능성도 크다. 또 '투표만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하는 유일한 방법인가'라는 물음에 2040세대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31.5%였고 50대 이상은 18%였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 정치 효능감이 높다는 의미인데, 이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투표뿐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정치 현안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가 교수는 "정치 효능감의 증가는 정치 참여의 확대로 연결된다"고 진단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정치 효능감(Political Efficacy)=자신의 정치적 활동이 정부나 정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식이나 믿음을 말한다. 정치 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 참여와 연관성이 크다. 정치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4·11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28일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시선관위 주최로 '우리 동네 투표참여 홍보단' 발대식이 열렸다. 최예식 부산시선관위 상임위원, 홍동진 부산시선관위 직원, 정용규 부산시 투표참여 홍보위원 대표(왼쪽부터)가 투표를 대박 타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송봉근 기자

'MB 못한다' 2040세대 72% ... 50대는 48%

"현 정부 평가 쟁점 맨 새누리 불리"

'올해 12월에 선출될 대통령은 어떤 점을 가장 먼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연령대별 차이가 없었다. 2040세대는 30.1%가 도덕성을 꼽았고 이어 사회통합능력(28.8%), 정책능력(25.1%), 개혁성(9.1%), 국제적 안목(6.7%) 순이었다. 50대 이상에서도 도덕성(32.5%)이 가장 중요한 자질로 선택됐고 사회통합능력 30.8%, 정책능력 23.7%, 개혁성 4.4%, 국제적 안목 5.6%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차기 지도자상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없는 셈이다.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조진만 교수는 "도덕성이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요구되는 항목으로 나타난 것은 최근 고위층의 추문을 감안했을 때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며 "오히려 사회통합능력이 도덕성과 비슷할 정도로 많이 꼽힌 것은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쟁으로 혼란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단위: %

20~40대	잘한다 26.7	못한다 72.3	모름/무응답 0.9
50대 이상	49.6	48.0	2.3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연령대에 따라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2040세대에선 '잘한다(매우 잘한다+잘하고 있는 편이다)'는 평가가 26.7%에 불과했고, '못한다(매우 잘못+잘못하는 편)'는 응답이 72.3%에 달했다. 하지만 50대 이상에선 '잘한다'(49.6%)와 '못한다'(48.0%)가 엇비슷했다. 60세 이상만 놓고 보면 '잘한다'(59.8%)가 '못한다'(37.6%)보다 더 많았다. 조 교수는 "50대 이상보다 2040세대가 두 배 이상 많기 때문에 올해 총선과 대선 구도가 현 정부에 대한 평가로 전개될 경우 새누리당이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에

대해 50대 이상은 절반 이상(51.7%)이 경제·민생을 지목했고 사회복지(15.9%), 외교·안보(12.8%), 교육·환경(9.9%) 등 순서였다. 2040세대에서도 경제·민생을 꼽은 비율은 41.9%로 가장 많았지만 사회복지(18.9%), 교육·환경(18.5%), 정치·행정(12.2%) 등 50대 이상과는 다소 다른 정책 욕구를 보였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조사 이월계=3월 20~21일 중앙일보 조사 연구팀이 전국 만 19세 이상의 남녀 11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조사. 성·연령·지역별 인구 수 비례 RDD 방식(임의 전화번호 걸기)으로 표본 추출(일반전화+휴대전화).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점점 떨어져...

즐거운 느낌이 없다면 ...

새벽소리

10년 동안 변함없이 믿음도 제품력도 인정해주시면서 수년동안 드시면서 더욱 더 좋은 제품 만드는데 몰두 하도록 물질적 도움까지 주시는 전국 회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회원(會員)님들 건강에 책임져가는 마음으로 평생을 지켜드리고 지켜가기 위해 5년마다 한번씩 제품력과 질(質)을 한층 더 보강(補強)하고 있습니다.

2대를 이어온 풀잎뿌리 家業會社
상담및구입문의 : 본사·공장
042)256-0239

●일본으로 드시는 가족님들께 (새벽소리 50일분 공금)
●회원님으로 드시는 회원님들께 (새벽소리 50일분 3회공금)

*나이는 들지만 늘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 드시면서 확실한 효과가 없으면 조금이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형식 돌려 보내 주세요.

나와 내가족 건강 때문에 늘 괴롭고 답답하다면...

당신 건강이 늘 괴롭다면 ...

비비네타

10년 동안 변함없이 믿음도 제품력도 인정해주시면서 수년동안 드시면서 더욱 더 좋은 제품 만드는데 몰두 하도록 물질적 도움까지 주시는 전국 회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회원(會員)님들 건강에 책임져가는 마음으로 평생을 지켜드리고 지켜가기 위해 5년마다 한번씩 제품력과 질(質)을 한층 더 보강(補強)하고 있습니다.

2대를 이어온 풀잎뿌리 家業會社
상담및구입문의 : 본사·공장
042)256-0239

●일본으로 드시는 가족님들께 (비비네타 50일분 공금)
●회원님으로 드시는 회원님들께 (비비네타 50일분 3회공금)

*옛날 내전장으로 되돌리고 싶다. 드시면서 확실한 효과가 없으면 조금이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형식 돌려 보내 주세요.

We Start 만원

[헬렌 켈러]

태어난 지 19개월 무렵, 시력과 청력을 잃게 된 뒤로 막무가내 고집쟁이가 된 헬렌 켈러. 그녀에게 언 설리번 선생이 없었다면, 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에게 '빛의 천사'로 불리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앤 설리번]

어린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당하고 일찍 어머니를 여윈 앤 설리번. 그녀가 병에 걸려 시력을 잃어가던 때에 바바라 신부를 만나지 못했다면, 시력을 회복하고 헬렌 켈러의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바라 신부]

앤 설리번이 그랬듯 우리 아이들에게 위대한 미래가 되어 주세요

누구나 유명해질 수는 없지만 위대해질 수는 있습니다. 나누면 위대해집니다.

나눔이 아이들의 꿈을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당신을 함께 행복하게 합니다. 국내에도 100만명의 소외된 아동들이 희망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 035-061482-04-011 위스타트 운동본부 정기후원 문의 02)318-5004 westart.or.kr facebook.com/westart5004

We Start
희망의 새싹을 키우자

광고안내
02)754-5566

모 집

예비 스님 모집, 출가 학교, 한국불교대학 010-9562-8228

금융

중소기업 신용 대출
구매, 운영, 급여
교환자금, 어음할인
대영투자 031)711-8781
대부
대출한도 3천만원이상 연10~30%
금곡동171 성남1107로 *달러환영

부동산담보 대출
아파트, 빌라, 주택, 전국 땅
후순위 담보 당일 대출
02)523-8407~8
(주) 피엘라인 대부 월1~3%
2010서울강남0151 강남대치889-5

광고문의

본사 광고부 (02) 751-5555
밀양 광고센터 (02) 364-3500
강북 광고센터 (02) 777-7856
중앙강남광고센터 (02) 771-3677
서울 광고센터 (02) 777-7007
티비시어센터 (02) 778-2568
출판서적센터 (02) 757-2542
서울부동산센터 (02) 756-6611
안녕광고센터 (02) 754-5566
강경광고센터 (031)871-6223
경기광고센터 (031)718-6111
인천광고센터 (032)431-4101
광주광고센터 (062)363-5617
대구광고센터 (053)429-7071
대전광고센터 (042)489-7188
부산광고센터 (051)469-7484